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202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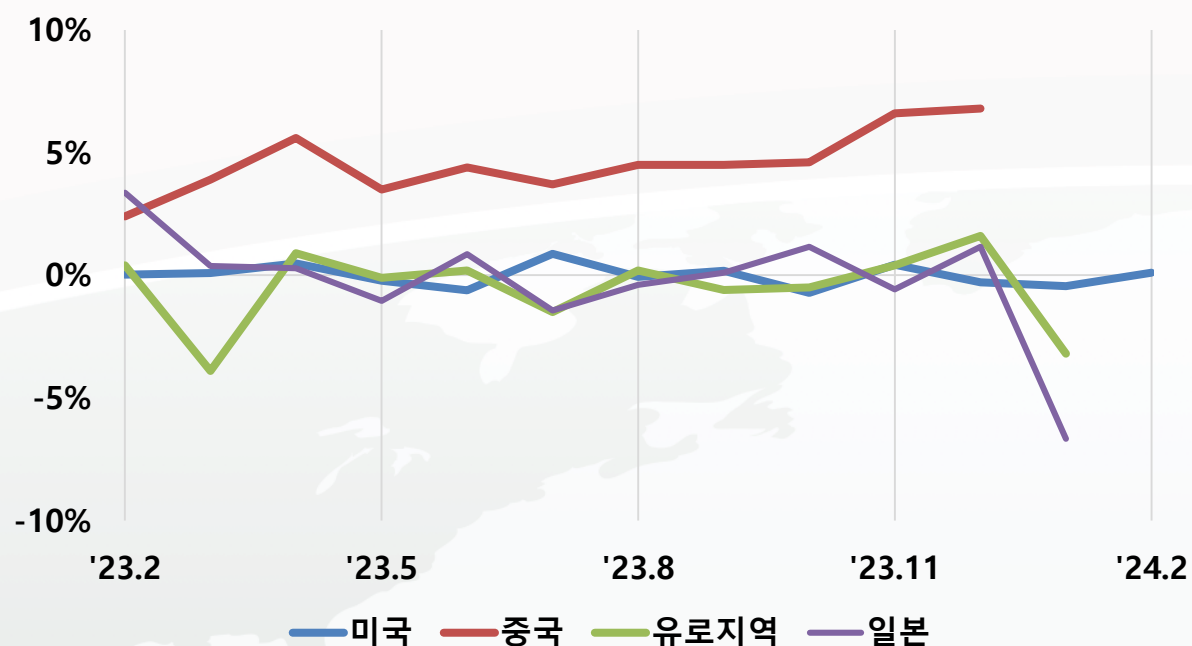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세계 경제동향

■ 주요국 경제동향 : 미국 고용 견조세 지속 및 금리인하 지연 가능, 중국 경기 소폭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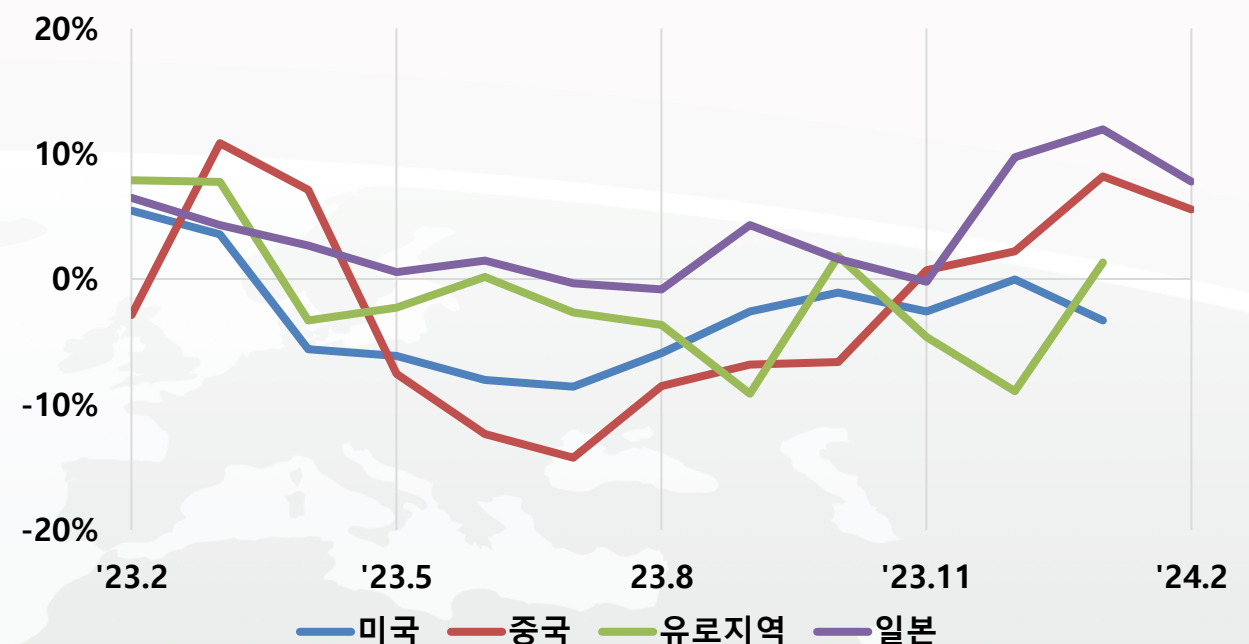
- **(미국) 생산 둔화 불구 고용 및 소비 시장 견조세 지속, 물가 상승률 소폭 상승**
 - 2월 산업생산(+0.1%)은 3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최근 부진 양상, 소매판매(+0.6%) 전월 대비 증가세로 반전
 - 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27.5만명) 전월(+22.9만명) 대비 확대, 실업률(3.9%)은 전월대비 상승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은 +3.2%로 전월(+3.1%) 대비 상승폭 확대, 근원물가 상승률(+3.8%)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
- **(중국) 제조업 및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부진 등 불확실성 지속**
 - 1~2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7.1% 증가, 4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 유지
 - 2월 전산업 PMI가 50.9를 기록하며 '23년 12월(50.3) 저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유로존) 경제지표 혼조세 속에 소비자 물가 안정세 유지**
 - 1월 산업생산(전월 대비 △3.2%) 큰 폭 감소, 소매판매 전월 대비 증가율 +0.1%로 2개월 만에 소폭 증가세로 반전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6%로 전월(+2.8%)대비 소폭 하락, 유로존 2월 전산업 PMI(49.2)는 전월(47.9) 대비 상승
- **(일본) 산업생산 큰 폭 위축, 소비 증가, 수출 감소 등 경기지표 혼조세**
 - 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6.7% 감소, 1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8% 증가, 수출(엔화기준) 전년동월 대비 3.3% 감소

전산업생산지수



주 : 전월 대비, 계절조정 기준.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Bloomberg

수출 추이



주 : 전년동월 대비, 원계열 기준. 중국(USD) 제외 각국 통화 기준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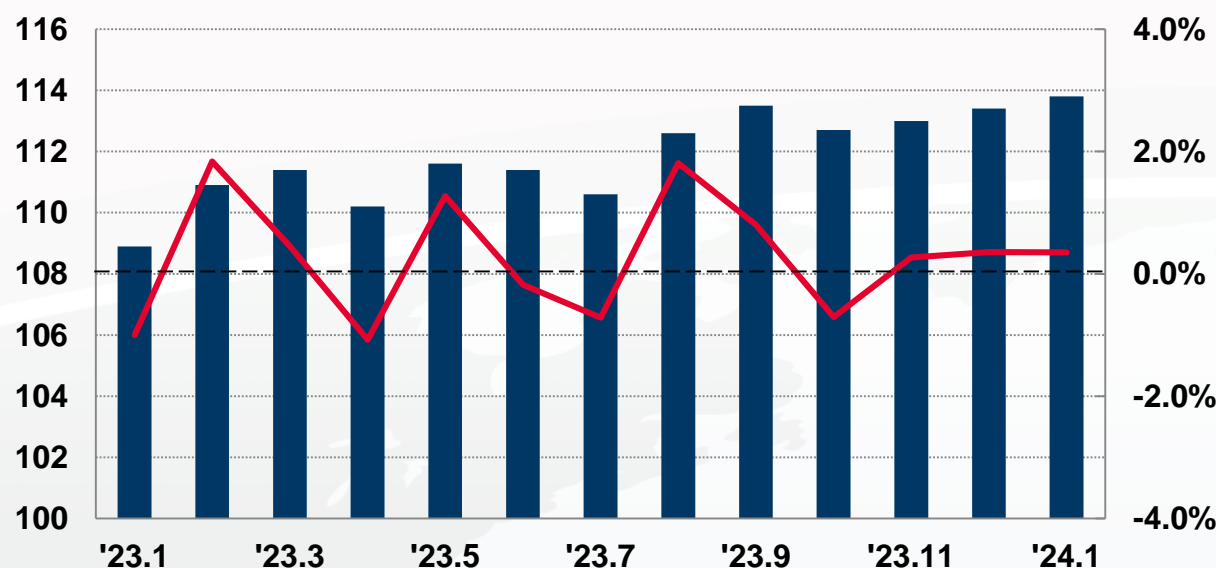
■ 산업 활동 : 서비스업 생산 증가, 경기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 (생산) 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은 줄었으나 건설업(+12.4%)·서비스업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0.4% 증가
 - (광공업 : Δ 1.3%) : 통신·방송장비(+46.8%)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Δ 8.6%), 기계장비(Δ 11.2%) 등에서 감소
 - (서비스업 : +0.1%) : 도소매(Δ 1.0%) 등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에서 증가
- (경기) 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100p)는 장단기금리차, 건설수주액 등은 감소했으나, 재고순환지표,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보합(기준치 100)

■ 고용 : 30대, 40대, 60세 이상에서 늘어 고용률 상승, 취업자수도 33만명 증가

- (고용률) 2월 15~64세 고용률(68.7%)은 30대, 40대, 60세 이상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취업자) 1월 취업자수(2,804만3천명)는 공공행정, 정보통신업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33만명 증가

전산업생산지수 (계절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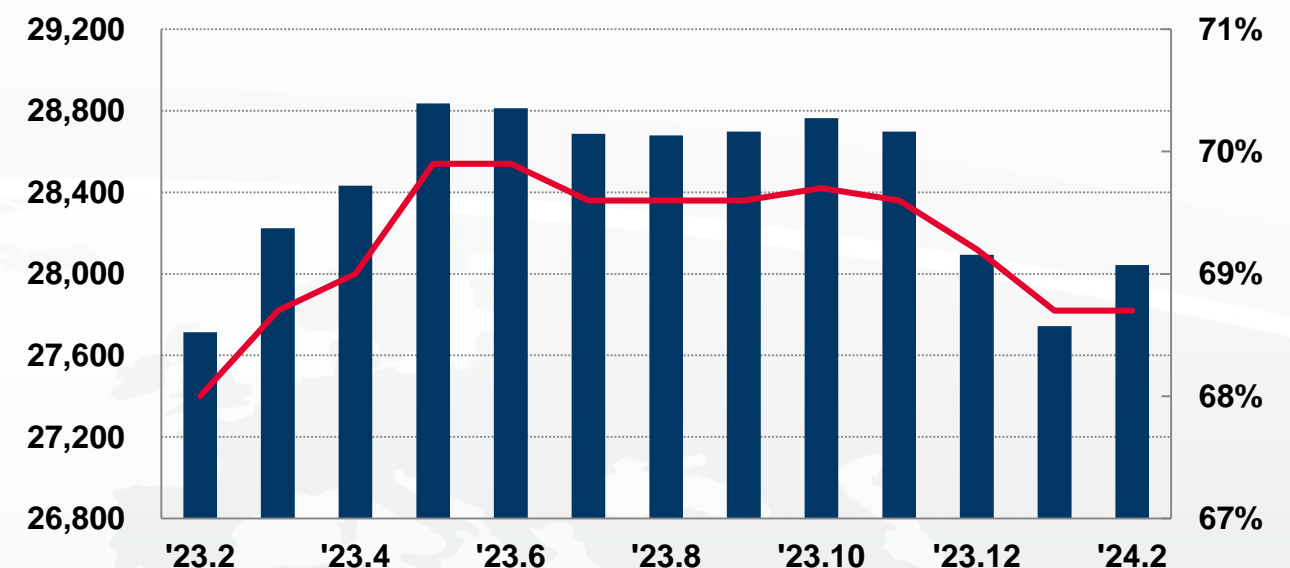


■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좌)

— 증감률(우)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취업자수 · 고용률



■ 취업자(천명) (좌)

— 고용률(15-64세)(우)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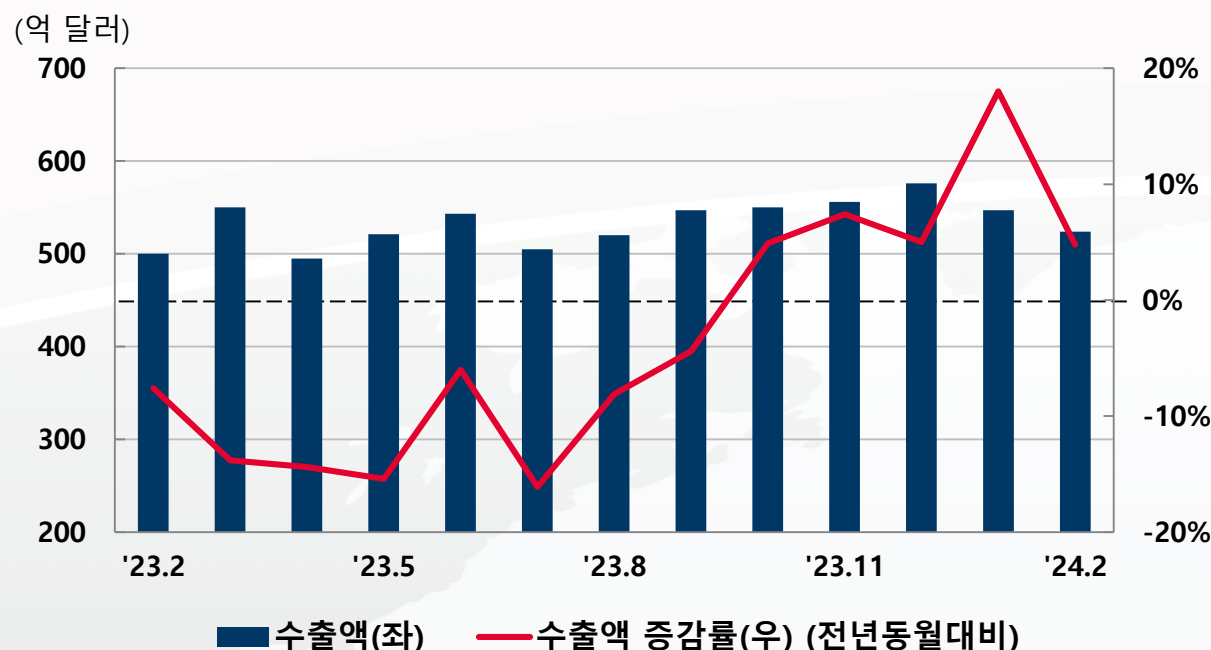
■ 수출입 : 반도체·선박 등 호조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 무역수지도 개선세 지속

- (수출) 2월 수출은 524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4.8%)로 5개월 연속 증가
 - 반도체(+66.7%)는 낸드 가격 상승, 수출물량 증가 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 선박(+27.7%), 디스플레이(+20.0%)등도 호조세 지속
 - 중국(△2.4%)은 춘절 연휴(2.10~17)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미국(+9.0%)은 반도체, 기계, 컴퓨터 수출 호조로 7개월 연속 증가
- (수입) 2월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가 하락으로 전년대비 13.1% 감소한 481억 달러
- (무역수지) 전년동월 대비 97억 달러 개선된 42.9억 달러 흑자, 9개월 연속 흑자 기록

■ 교역 조건 : 원/달러 환율,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출입물가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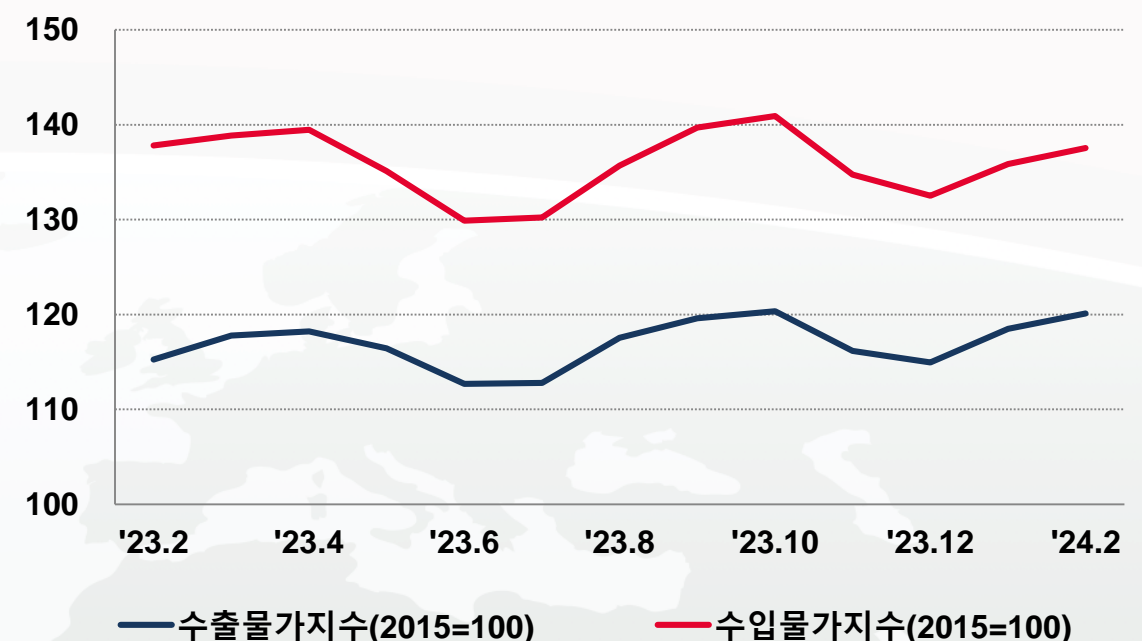
- (수출물가) 2월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원/달러 환율, 반도체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 (수입물가) 2월 수입물가(원화기준)는 국제유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전월대비 1.2% 상승,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수출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통관기준)

수출입 물가



자료 : 한국은행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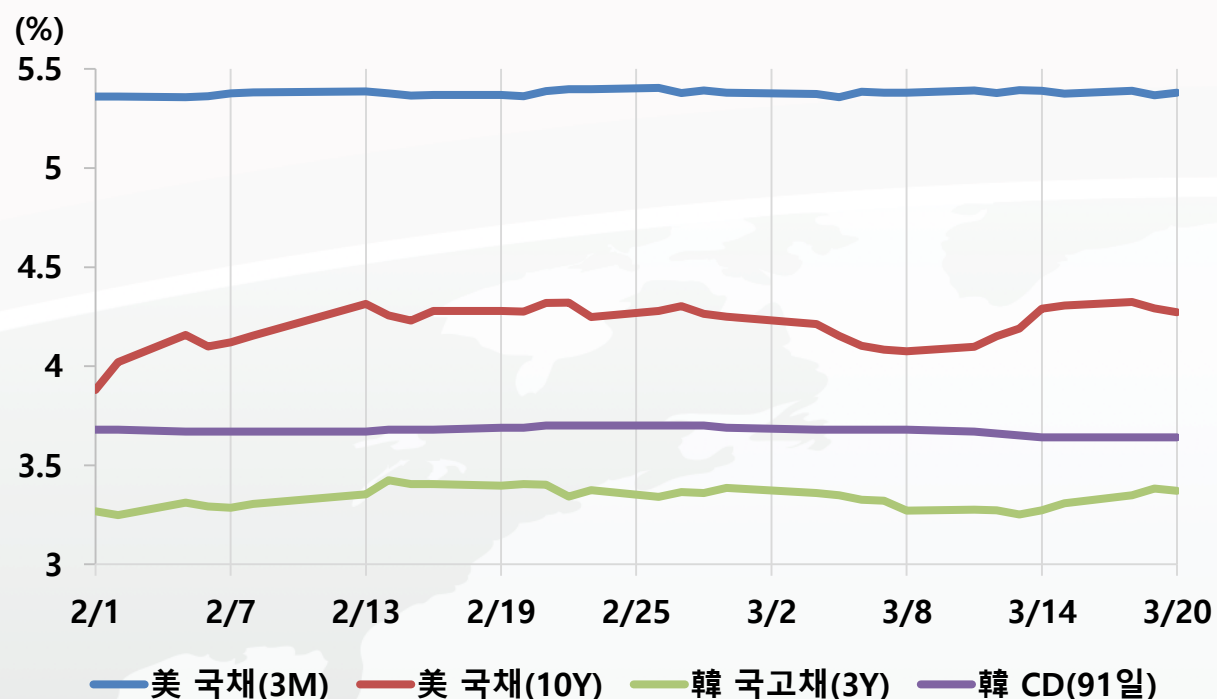
■ 금리 : 미국 고용 안정세, 소비자 물가 상승폭 확대 등으로 금리 상승

- (미국) 미국채 금리(10년물)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3월 초 4.1%대로 하락한 이후 2월 고용지표 견조세 유지, 소비자 물가 상승폭 확대 등으로 금리 인하 시점 지연 및 연내 인하 횟수 축소 가능성으로 4.3%대 상승
- (한국) 국고채 금리(3년물)는 국내 경기 개선 지연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금인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 및 미금리 상승세 등으로 3월초 소폭 하락한 이후 재차 상승하며 3.4%대 기록

■ 환율 : 미국채 수익률 상승, 주요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미달러화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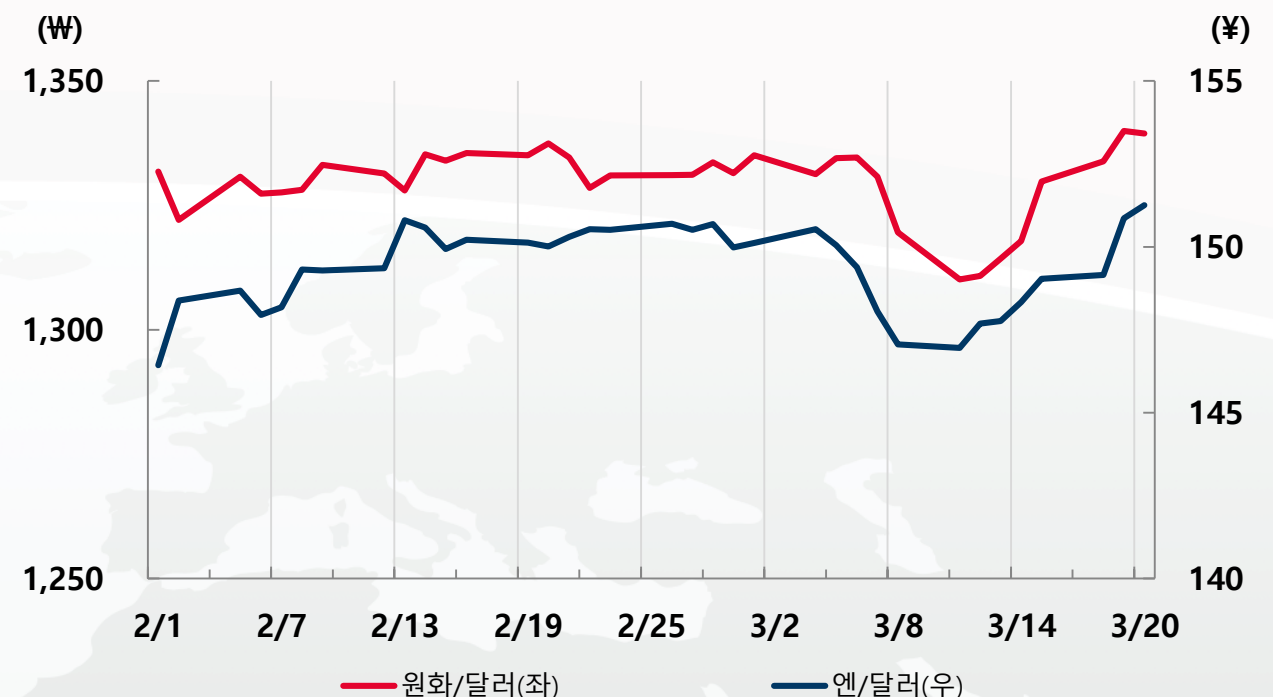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은 미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로 3월초 1,310원/달러(3/11)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되며 1,339원/달러 수준까지 상승
- (엔/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150엔/달러 수준 유지, 원/엔 환율은 엔화 약세가 강화되며 890원/100엔 수준에서 등락

韓·美 채권 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및 한국은행

달러 환율(對원화, 對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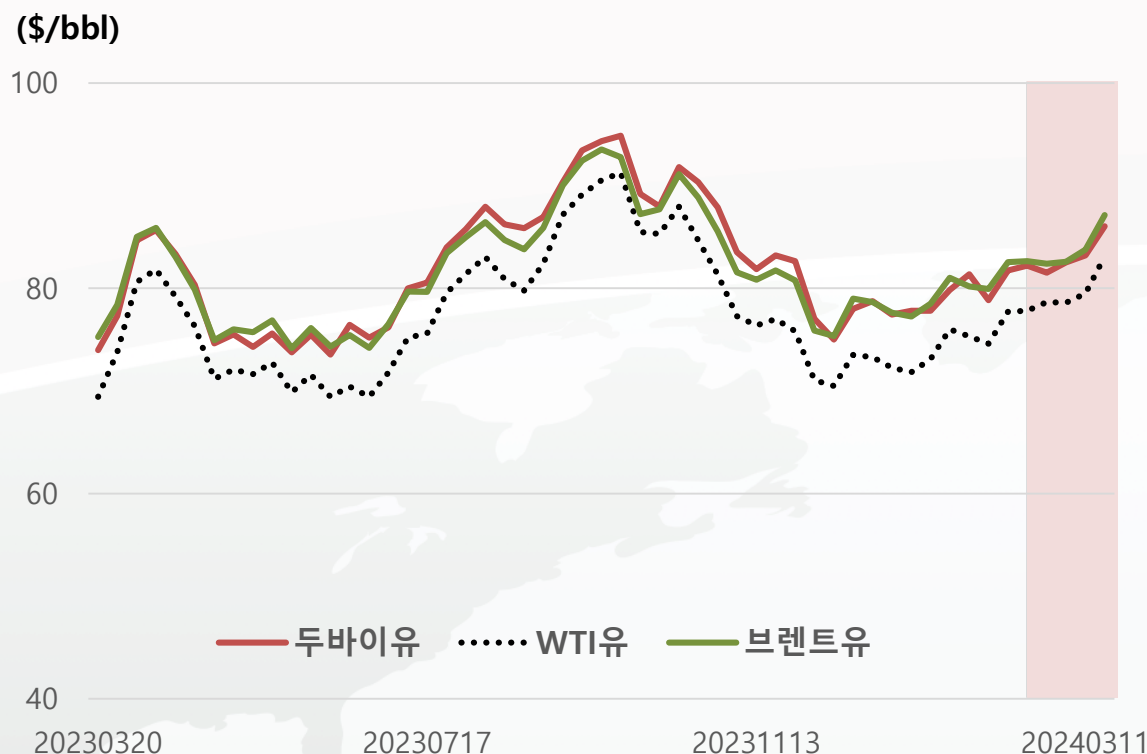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중반대로 상승,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1달러 중후반대에서 보합세

- (원유)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제설비 공격 등 공급차질 우려 확대와 함께 석유수요 증가 기대감 등으로 2월 이후 유가 상승세 지속, 작년 11월초 이후 최고치 기록(\$86.43/bbl, 3/19일)
 - IEA(국제에너지기구)는 3월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석유수요가 전년대비 130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전월 전망치 대비 11만 b/d 상향 조정)하는 한편 OPEC+ 자발적 감산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며 공급은 80만 b/d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천연가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2월 초 mmBtu당 1달러대 중반대로 급락한 이후 유가상승에 따른 천연가스 동반 상승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수요둔화 우려로 1달러 중후반대에서 보합(\$1.58/mmBtu, 2/15일)
 - 동절기 종료, 온난한 기온 예보 등 난방용 가스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은 미국 LNG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수요억제 정책을 전개하고 최근 풍력 발전량도 증가해 천연가스 재고가 높은 수준을 기록

국제유가 추이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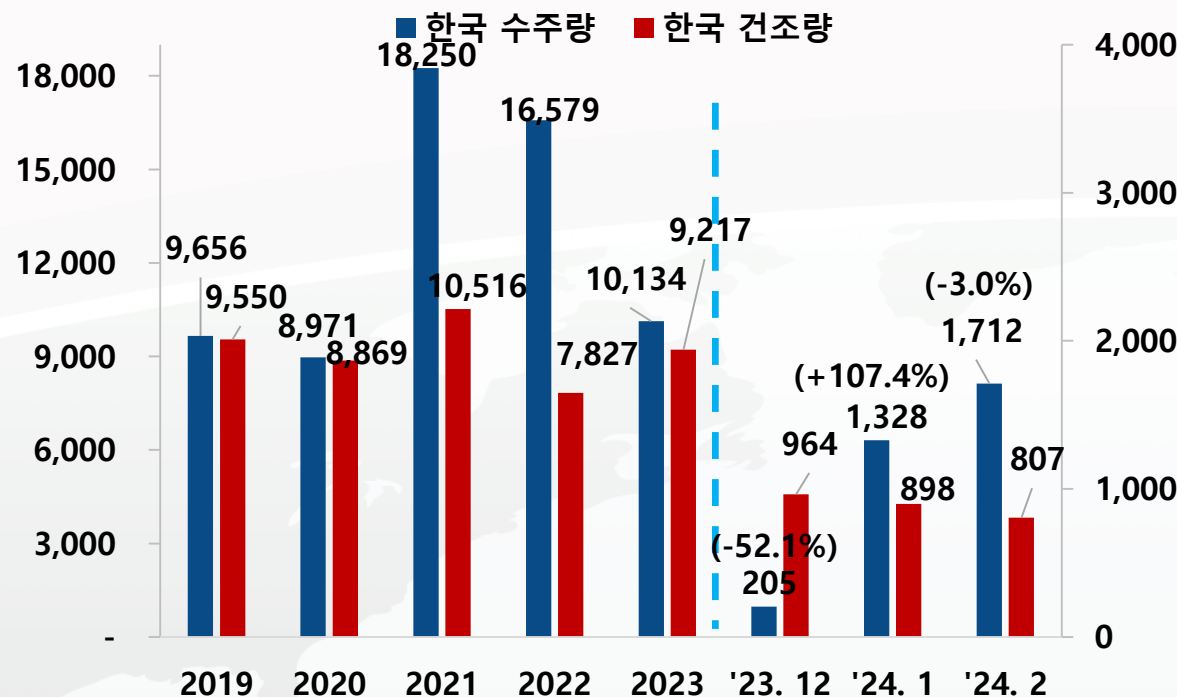
자료 : Koreapds(유가는 주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

■ 2월 세계 발주량은 양호하였으며 국내 수주량도 점유율을 높이며 더욱 양호한 수준 기록

- 2월에도 전월에 이어 다양한 선종이 발주되었으며 특히, 카타르발 LNG선 등이 대량 발주되어 양호한 시황 기록
 - 2월 세계 발주량은 341만CGT(전년동월 대비 +18.2%), 2월 누적 발주량은 683만CGT(전년동기 대비 +7.8%)
 - 2월 한국 수주량은 171만CGT(전년동월 대비 △3.0%), 2월 누적 수주량은 304만CGT(전년동기 대비 +26.4%)
 - 2월 한국 수주액은 49.9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0.2%), 2월 누적 수주액은 90.3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34.0%)
 - 2월 신조선 시장은 LNG선과 VLCC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년까지 강세를 보였던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크게 감소함
 - 한국은 이중 LNG선 전량을 수주하였고 대형 암모니아/LPG 겸용선 등을 수주하며 점유율을 높임
- 2월 선박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양호한 수준은 아님
 - 2월 수출액은 19.8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27.7%), 누적 수출액은 44.9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50.9%)
 - 수출액은 증가추세이나 생산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경우 월 25억달러 이상의 수출이 기대되어 아직은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됨

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천C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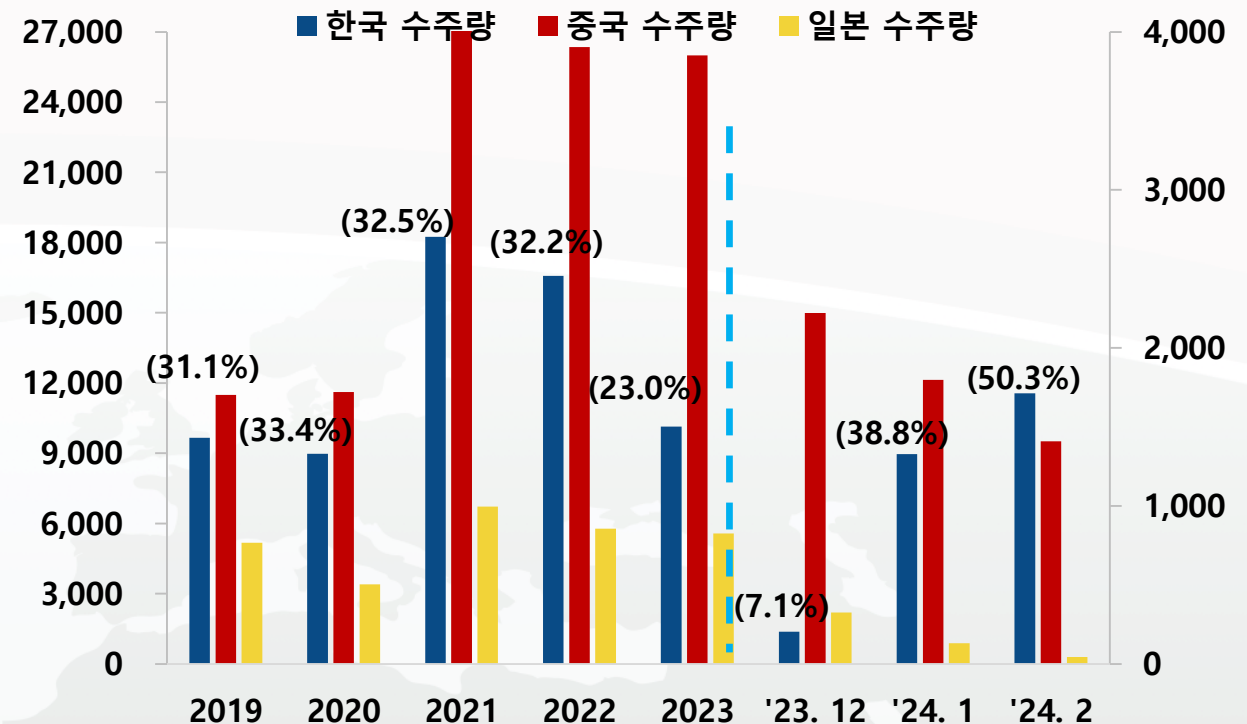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
자료 : Clarkson

한·중·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천CGT)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주 : 괄호 안은 당해연도 및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
자료 : Clarkson

■ 2월, 주요 선종 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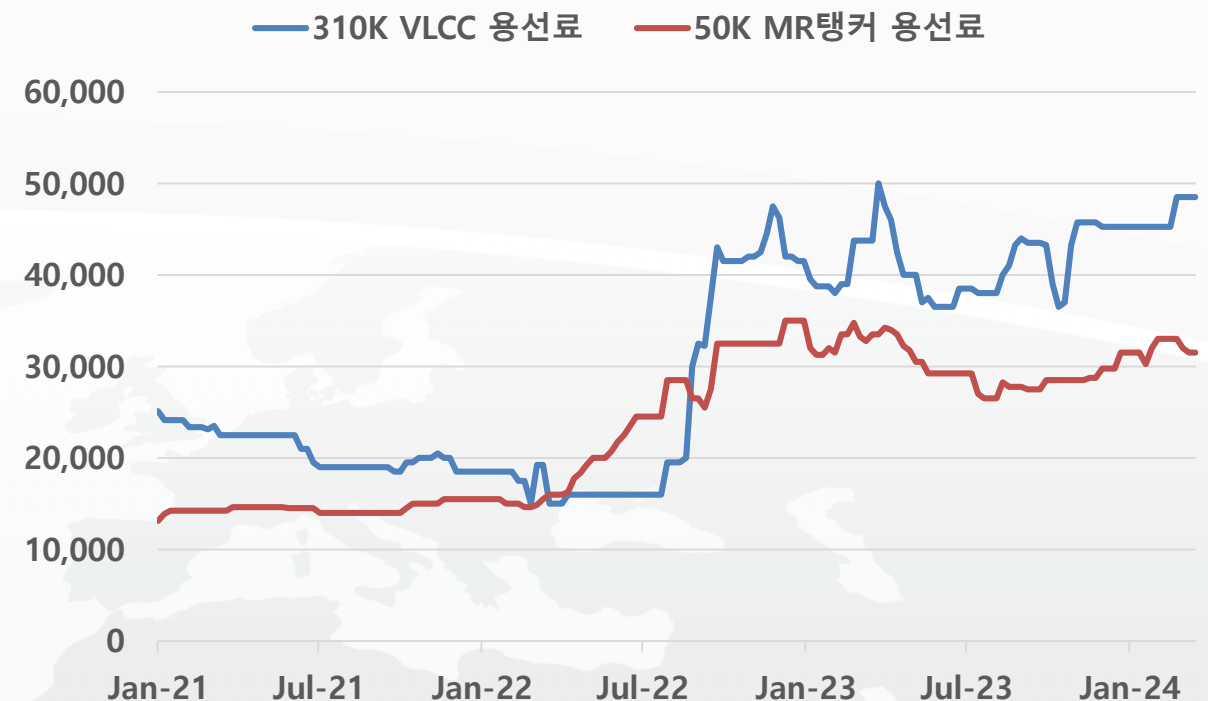
- 2월 드라이벌크선 운임은 춘절을 앞둔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강세
 - 2월 벌크선 운임은 춘절 비수기 영향에서 벗어나 상승하였으며 운하 통행 차질과 중국 철강산업 수요 견조로 비교적 강세
 - 2월 BDI 평균은 1,650(전년동기 대비 +150.7%)를 기록하였고 3월 3주차 BDI는 2,357(전년동기 대비 +52.1%)
- 2월 컨테이너선 시황은 홍해 사태 영향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1월 중순 이후의 운임 하락 추세 지속
 - 2월 중에도 홍해 사태가 해소되지 못하여 운임이 비교적 강세를 보였으나 그 영향이 다소 약화되며 운임 하락 추세가 지속됨
 - 2월 평균 SCFI는 2,165(전년동기 대비 +120.7%) 기록, 3월 3주차 SCFI는 1,773(전년동기 대비 +94.9%)
- 2월 탱커 시황은 러-우 전쟁 영향에 홍해 사태의 영향, 수년간 미흡한 신조투자에 따른 선박공급 제한 등으로 양호
 - 홍해 사태 영향으로 인한 희망봉 우회 선박 증가, 신조발주 부진에 따른 신규 선박량 제한 등으로 탱커 시황은 매우 양호
 - 2월 평균 1년 정기용선료 310K VLCC는 1일당 46,063달러(전월 대비 +1.8%), 50K MR탱커는 33,000달러(전월 대비 +5.4%)

BDI 및 SCFI 추이 (지수)



자료 : Clarkson, Baltic Exchange, 상하이항운교역소

탱커 1년 정기용선료 추이 (\$/day)



자료 : Clarkson

석유제품·석유화학

■ 1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3.9%, △3.1% 기록

- (석유제품) '24년 2월 수출액은 전년 수준의 가동률 유지로 수출물량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유가하락에 따른 휘발유·경유 등 일부 석유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 동월대비 3.9% 감소한 44.2억 달러 기록

* 국제유가(두바이유, \$/bbl): ('23.2) 82.11 → ('24.2) 80.8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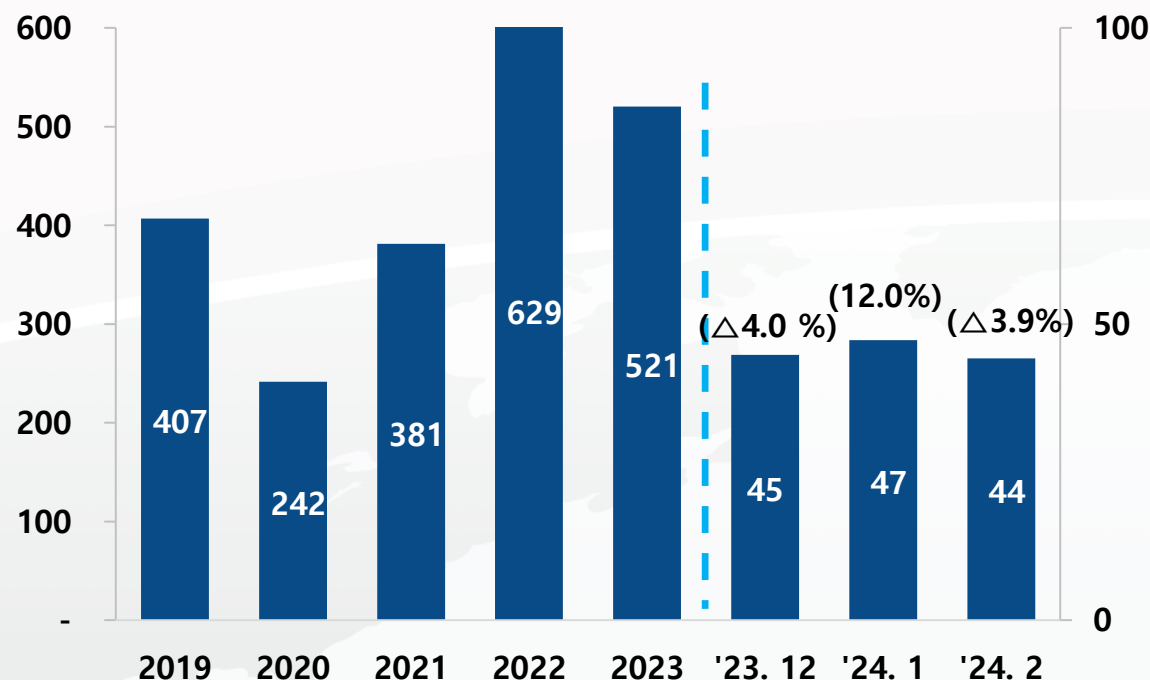
* 석유제품 수출단가(\$/톤): ('23.2) 824 → ('24.2^e) 798(△3.3%)

- (석유화학) '24년 2월 수출액은 유류설비 재가동 및 신증설 설비 가동 본격화 등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했으나, 중국 수요 둔화,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따른 제품 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3.1% 감소한 39.4억 달러 기록

* 석유화학 제품 수출단가(\$/톤): ('23.2) 1,320 → ('24.2^e) 1,211(△8.3%)

석유제품 수출액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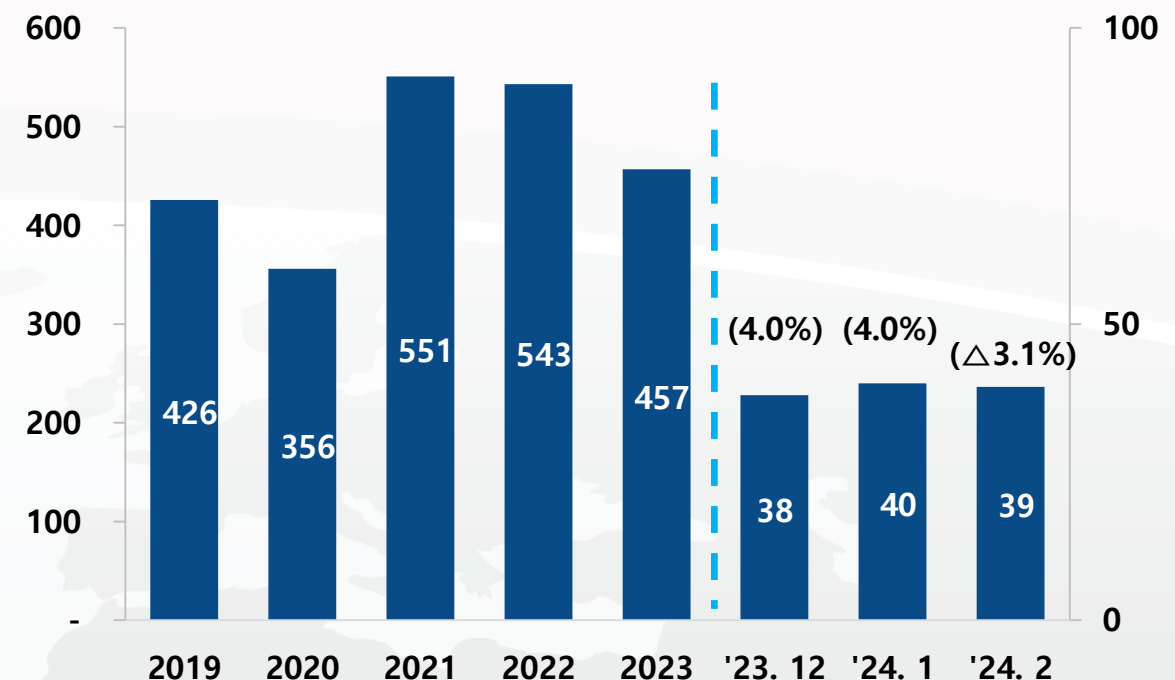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연간자료는 KITA, 월간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석유화학 수출액 (억 달러)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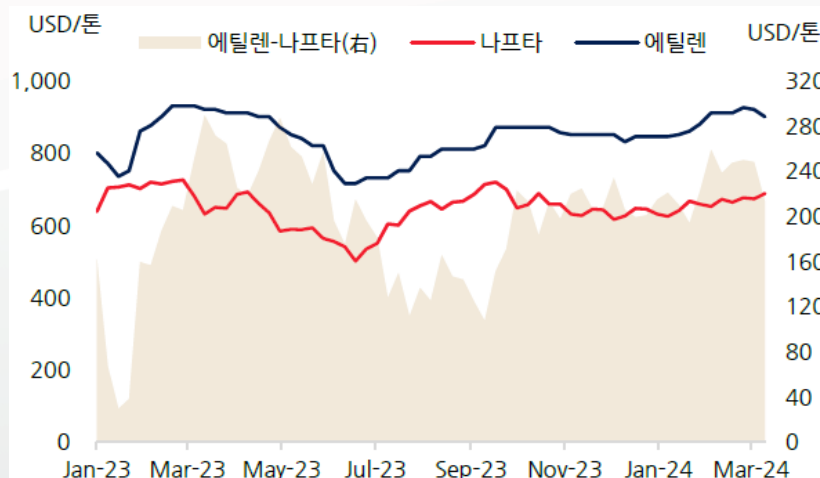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연간자료는 KITA, 월간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석유화학 기초유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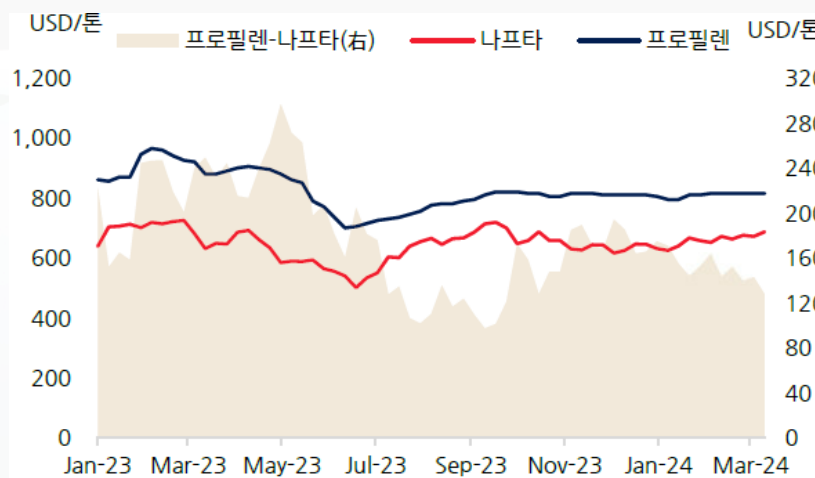
■ 에틸렌 가격은 하락, 프로필렌 가격은 보합세 지속, 부타디엔 가격은 상승세 지속

- **(에틸렌) 수요 부진과 공급 확대로 가격 하락**(\$900/톤, 3/13일)
 - 에틸렌 가격이 공급부족 우려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아시아 역내 크래커 가동률 상향조정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국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 등으로 에틸렌 계열 제품 구매가 둔화되며 가격 하락
- **(프로필렌) 주요 다운스트림 섹터인 PP 생산업체의 프로필렌 구매 축소 등으로 보합세**(\$815/톤, 3/13일)
 - 주요 시장인 아시아 경기 회복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등으로 다운스트림 업체들이 프로필렌 구매에 관망세를 보이는 한편 일부 대규모 PDH 설비가 유지보수에 들어가며 공급 또한 감소하며 보합세
- **(부타디엔)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지속되며 가격 상승세**(\$1,320/톤, 3/14일)
 - 크래커 가동률이 낮게 지속됨에 따라 부타디엔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한편 견조한 고무 수요 및 천연고무 시장 강세로 부타디엔 가격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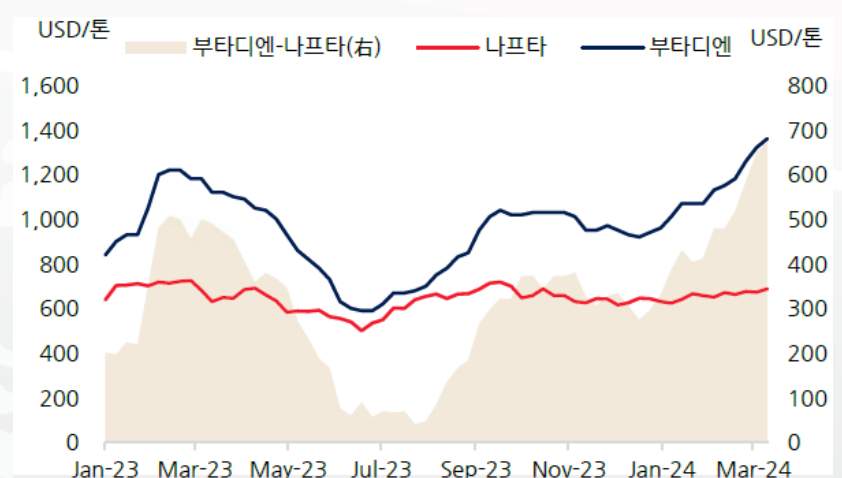
에틸렌 가격 추이



프로필렌 가격 추이



부타디엔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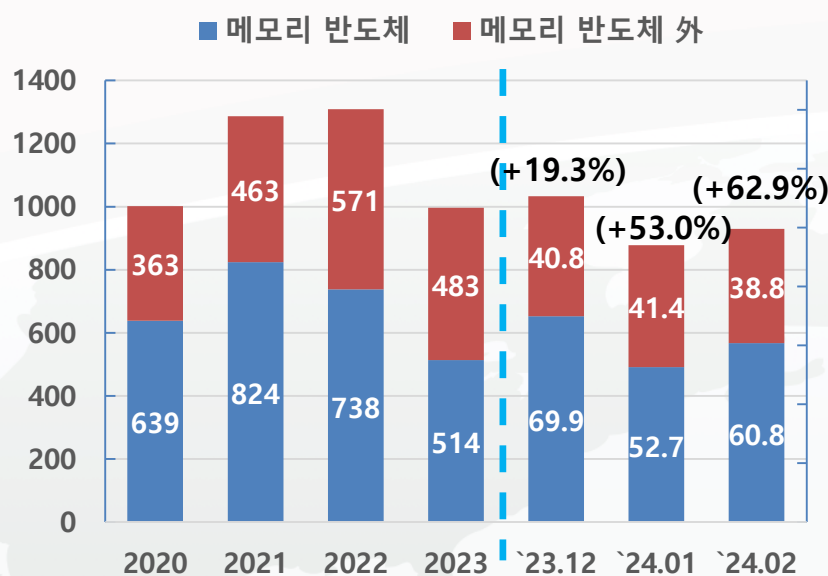
자료 : Koreapds(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가격은 한국 FOB, 나프타 가격은 일본 C&F)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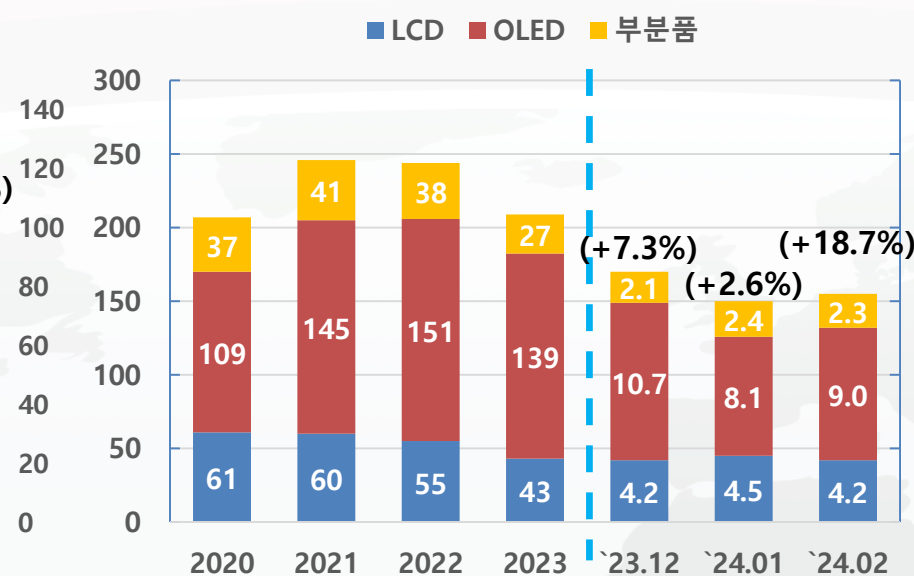
■ 2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2.9% 증가, 디스플레이 18.7% 증가, 통신기기 18.5% 감소

- 2월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수출액의 가파른 증가세가 유지(+108.1%)되며 전년동월 대비 62.9% 증가한 99.6억 달러 기록
 - (메모리) 2월 메모리 수출은 가격 반등과 HBM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08.1% 증가한 60.8억 달러 기록
 - (메모리外) 2월 메모리外 반도체 수출은 AI 인프라 투자확대로 인한 시스템반도체 수요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21.6% 증가한 38.8억 달러 기록
- 2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모든 세부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18.7% 증가한 15.5억 달러 기록
 - (LCD) 2월 LCD 수출은 베트남, 중국 등의 패널 수요가 지속되며 전년동월 대비 39.6% 증가한 4.2억 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OLED) 2월 OLED 수출은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12.9% 증가한 9.0억 달러 기록
- 2월 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분품 수출이 감소(△36.9%)하여 전년동월 대비 18.5% 감소한 10.1억 달러 기록
 - (휴대폰) 2월 휴대폰 수출은 對EU 완제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분품 수요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21.3% 감소한 8.1억 달러 기록
 - *2월 완제품 수출은 對EU 수출액이 대폭(+152.8%)으로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55.1%증가, 부분품 수출은 5.4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6.9% 감소
 - (통신장비) 2월 통신장비 수출은 베트남과 미국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인도 수출이 감소하며 전년동월 대비 6.7% 감소한 2.0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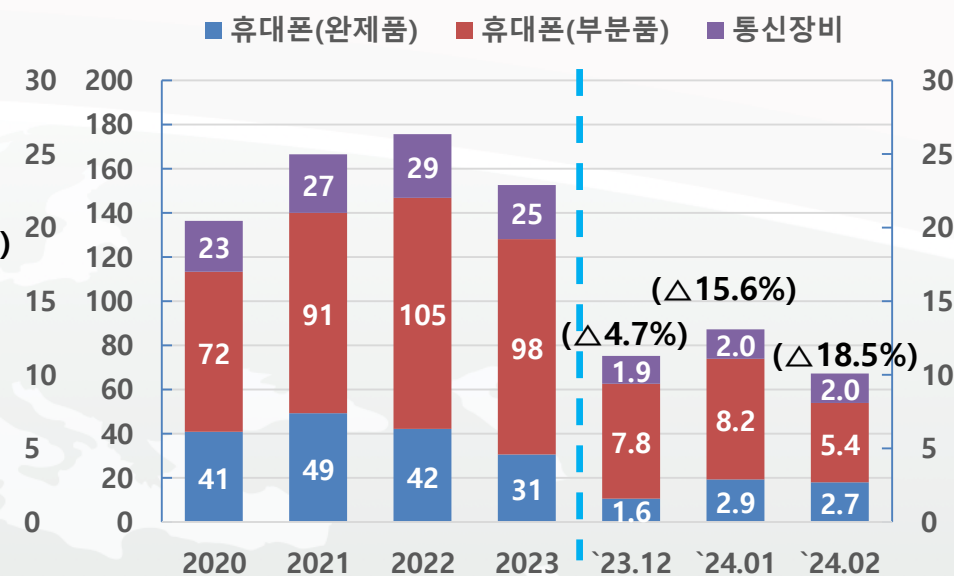
반도체 수출액 (억 달러)



디스플레이 수출액 (억 달러)



통신기기 수출액 (억 달러)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공급망 동향

■ 2월 주요 변동 핵심광물은 니켈 · 코발트 · 리튬 · 희토류, GVC 주요 키워드는 기업, 반도체, 중국 등

- (핵심광물 수입량 변화) 2월 니켈 · 코발트는 수입량 대폭 증가, 코발트 · 리튬 · 희토류는 공급망 다각화 시도 중
 - (니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266.6% 증가한 3,398톤 기록
*한국의 니켈 주요 수입국은 핀란드였으나 '23년 5월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유의 필요
 - (코발트) 對중국의존도를 낮추고 콩고, 핀란드 등을 통해 다각화를 시도 중, 수입량은 전년동월 대비 68.7% 증가한 393톤 기록
 - (리튬) 공급망 다각화로 칠레로부터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동월 대비 소폭 감소(6.7%)한 10,700톤 기록
 - (희토류) 필리핀을 통한 공급망 다각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입량은 전년동월 대비 22.9% 감소한 608톤 기록
- (GVC 주요 이슈) 2월 주요 공급망 관련 키워드는 기업, 반도체, 중국, 산업 등으로 나타남
 - (정부) (美) CHIPS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對中 반도체 규제를 강화; (EU) 탄소중립법(NZIA)을 합의하고 원자력 발전을 탄소중립 기술로 인정; (印) 28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프로젝트 착수; (韓) 산업부 주도로 15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논의
 - (기업) TSMC의 일본 제1공장 개소, 中전기차 부품기업의 멕시코를 통한 對美우회수출 확대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중이며 미국의 중국공산주의대응 법안(CCCA),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화 중

월간 국내 핵심광물 수입 현황 (중량 기준)

핵심광물	흑연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희토류
총수입중량 (단위: 톤)	1,198 (△44.5%)	393 (+68.7%)	3,398 (+266.6%)	10,700 (△6.7%)	987 (△34.3%)	608 (△22.9%)
<국가별 수입 비중 (단위: %)>						
벨기에	0.0	8.3	1.4	0.0	0.0	0.0
콩고 민주공화국	0.0	18.1	0.0	0.0	0.0	0.0
칠레	0.0	0.0	0.0	41.4	0.0	0.0
중국	94.7	46.1	73.6	54.0	72.5	67.4
키프로스	0.0	0.0	10.0	0.0	0.0	0.0
독일	0.5	0.0	0.0	0.0	5.8	0.1
핀란드	0.0	22.0	12.9	0.0	0.0	0.0
홍콩	0.0	5.5	0.0	0.0	0.0	0.0
일본	1.3	0.0	1.5	0.0	6.3	4.5
필리핀	0.0	0.0	0.0	0.0	0.0	24.4
대만	0.0	0.0	0.6	0.0	13.0	1.1

자료 : 무역협회, *핵심광물별 세부 코드: 흑연(HS 250410), 코발트(HS 282200), 니켈(HS 283324), 리튬(HS 282520, 283691), 망간(HS 283699), 희토류(HS 280530, 284610, 284690, 850511)

월간 공급망 주요 키워드



자료 : 무역협회 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https://www.kita.net/>)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키워드 추출